

第11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3號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12月4日(火) 10時05分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繼續)

附議된案件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繼續) 1面

(10時05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한 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 이어 계속해서 종로구청장에 대한 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吳錦南議員 외 8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吳錦南議員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議員 존경하는 19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직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吳錦南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그리고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정례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국·과장님! 1,400여 종로가족 여러분! 금년에도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만들기에 헌신의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종로구 한해 예산은 1,665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적소 적절하게 잘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5일 동안 감사한 결과를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들어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대상 금융재산조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영장이 없어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지방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자산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어 개인 신상 노출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금년 9월말

790건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등 전산망 자료와 금융재산에 대한 계좌만 추적한다면 특정인의 재산소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사생활 노출과 인권보호에 역행되는 금융조회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체납자의 정보 유출을 우려, 조회과정을 생략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조치를 금융거래 연합회에 통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시세와 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40억이 부족한 1,625억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 정보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때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어려움이 많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작년도말 12만 6,000여 건에 339억원, 금년도 4만 여 건에 89억원, 금년 10월말 총 16만 6,000여 건에 428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세 체납상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우리 구의 크나큰 짐이 되고 있어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시세와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및 고액 체납자는 전년도에도 11만 2,000여 건에 171억원이었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 2만 4,000여 건에 34억원이며 합치면 13만 6,000여 건에 20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은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의 50%만 수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좁은 소방도로를 몇 개는 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수납 독촉을 했으리라 믿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무

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며 2002년 6월은 월드컵대회 개최로 세계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로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동에는 2000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은 인사동 지역주민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인사동인 만큼 인사동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비문화업종에 대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후반기까지만 해도 내·외국인의 가장 한국적인 거리로 사랑받던 인사동이 '99년 172곳이던 고미술 업소가 지난해 87곳으로 불과 2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고 필방도 85곳에서 41곳으로 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표주점은 87곳에서 57곳으로, 화랑은 108곳에서 94곳으로 줄어든 탈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 유흥주점, 카페, 커피숍 등 요식업소는 83곳에서 350여 곳으로 450% 이상 증가하여 한국전통 문화질점지로서의 인사동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변해가는 인사동을 제일의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한국의 고미술하면 인사동이라는 명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로 구청에 흡수된 공무원을 동사무소로 유턴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 축소 및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한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반이 지나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99년 7월 서울 성동구를 대상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동기능 전환을 시범 실시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명에서 20명에 이르던 동 직원들은 11명 내지 12명으로 줄이고 이들이 맡고 있던 업무를 대부분 구로 이관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조직은 동장을 비롯해 주무,

서무주임, 사회복지사, 기능직, 운전기사, 민방위 및 민원서류 발급담당 등 11명 내지 12명 정도의 단순업무 직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 민원을 처리해오던 청소, 세무, 교통, 건설, 주택담당은 대부분 구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됨으로 주택이나 청소, 토목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부 직원을 유턴시켜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희궁 터 내의 공원부지 공원화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600년의 수도였던 서울에 있는 많은 궁궐들이 역사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희궁만큼 한과 슬픔이 맺혀 있는 궁궐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일제가 궁궐을 헐어내고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기려는 듯 말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섯 궁궐 가운데 가장 크게 망가진 궁궐은 경희궁이라고 합니다. 경희궁은 사적 271호 서울 신문로2가에 있는 약 2만 9,700여 평이며 서울시에서는 1984년부터 문화재 및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다시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들이 다섯 번의 철저한 발굴조사와 고증을 거쳐 일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공원조성은 되어 있으나 시립미술관 뒤 기상청 옆과 소운동장에 이르는 자연 녹지공간은 주민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공원조성과 녹지공간 내 산책로 및 소운동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 1-48번지 서부체육센터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부지역 체육센터는 꼭 건립이 되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직동 주민 여러분! 2002년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충만하시길 바

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錦南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洪承台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議員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 1.2.3.4가동 洪承台議員입니다. 전 부의장이신 吳錦南議員께서 자세한 인사말씀이 계셨으므로 인사말씀을 대신하면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있어서 크게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집행부가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둘째로서는 서울시나 중앙부처 예를 들어 건교부 등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상부기관과 이견 차이로 향후 연구 검토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견고 싶은 돈화문 거리의 문제점의 해결책은 전 정례회 때도 이 문제점을 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또 질의를 하느냐 이것이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많고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고 싶은 돈화문 거리의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집행부가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1기 민선 구청장 시절 1991년도 종묘 담 둘레를 시비 100억원 이상을 사업비로 투입하여 문화탐방거리 목적으로 조성하여서 순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이 순라길 주변의 낙후된 한옥 건물을 방치하고 도로만 개설하면 무분별한 개발과 이질용도의 침투로 인하여 이 문화의 탐방거리 목적이 훼손될 염려가 100% 있으므로 본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비롯해 건폐율 완화, 한옥 개·보수, 공공시설 확충, 전통문화 업종에 대한 융자지원 및 다양한 지원시책을 포함한 문제점을 서울특별시와 우리 종로구가 서로 합동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한옥과 작은 상점 및 옛 골목길 같은 전통문

화 업종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탐방의 거리로 조성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순라길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문화탐방거리 순라길은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이 지역은 현재 무질서한 주차장, 쓰레기 투기지역, 무허가 귀금속 가공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걷고 싶은 돈화문거리가 혹시나 이렇게 될까 우려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4시간 뛰는 존경하는 鄭興鎮 區廳長님!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문화1번지로 인정받는 것은 정도 600년의 뛰어난 문화유산이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뛰어난 문화유산이 있으며 그 문화유산이 가장 잘 보존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 비원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거리 즉, 걷고 싶은 돈화문 거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리 맥락을 가지고 鄭興鎮 區廳長님께서 2002년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한 돈화문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연말까지 말끔히 마무리하여 새로운 문화 기반시설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돈화문 거리는 해방이후 56년간 낙후된 거리로 참으로 침체된 거리였습니다. 이 지역주민은 물론 이 돈화문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조성에 36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함으로써 종로구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현재 이 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이 거리에 약 8개밖에 안되는 카센터와 경정비업소입니다. 제가 2001년 전반기 정례회 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항으로 등록취소는 불가능하며 사업자들이 영세하여 타지역으로의 즉시 이

전은 어려운 실정이나 업주들을 설득하여 자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한 향후 차량정비를 위하여 보도상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주차위반 단속 및 견인조치 등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걷고싶은 거리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첫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사업자들이 영세하여 타지역으로 즉시 이전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현시점으로 볼 때 그 근본원인은 권리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타업종이 들어오려고 하여도 지나친 권리금을 요구하므로 타 업종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답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거리 주변의 경정비업소는 그 점포 자체가 차 1대~2대 밖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차 3대, 4대 들어오면 이것은 당연히 보도상에 차량을 방치하여 거리에서 그 차량의 수리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미관상 그 거리는 조성될 수 없으며 우리가 본연의 걷고싶은 거리에 걸림돌이 아니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주민은 누구나 큰 문제점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걷고싶은 돈화문 거리에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또 그런 것을 많이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5개월간 이 거리에 보도상 차량을 방치하면서 수리하더라도 무슨 까닭인지 견인조치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업하는 카센터나 경정비업소 그 주인들의 말에 의하면 무슨 견인이냐 하면서 떳떳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주차위반 단속 및 견인조치 등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려면 단속반 1개조를 이 지역에 3개월만 상주시켜서 최선의 노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차위반 단속과 견인조치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鄭興鎮 區廳長님께서 이 질문에 확고한 관심을 갖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거리 조성사업비 36억원 중 전기공사가 3억 1,800만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59본입니다. 돈화문과 종로3가까지 가로등 숫자가 길이에 비하여 적다고 생각하여 그 가로등 숫자를 늘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로등을 수은주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밝은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바라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역사문화 탐방로 순라길처럼 잘못된 행정이 거듭되지 않도록 이 돈화문 걷고싶은 거리를 참으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종로1.2.3.4가동 문화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제가 2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의원인 洪起瑞議員께서 인사동 110번지 450평 서울시 소유에 대해서는 洪起瑞議員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동 탐골공원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탐골공원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유서깊은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려는 방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탐골공원 주변 뒷문 낙원동 218-2, 낙원동 219번지 지역에 그 전에는 쓰레기 적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鄭興鎭 區廳長이 1기 구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 냄새나는 쓰레기 적환장을 재활용센터로 만들어주셔서 낙원동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행운의 열쇠를 구청장님께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탐골공원이 성역화되고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려면 이 주변이 너무나 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원동 재활용센터를 이전하여 주시고 이 지역 재활용센터 소유는 재경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매입하여 종로 1~4가동 문화복지센터 및 중부 보건소 지소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스럽지만 제가 질의에 없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종묘공원이 2002년부

터 지역주민이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종묘공원은 종로 1~4가동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산책과 운동 등 다목적으로 이 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02년부터 입장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입장을 금지한다면 이 지역주민이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 진료의사 수급관련 건은 시간상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承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丁炳煥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議員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만들기에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1,400여 종로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악동 출신 丁炳煥議員입니다. 저를 구의원으로 보내주신 형제자매와 같은 무악동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1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뜻깊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과 이들 재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하겠습니까. 법이 중요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지방세원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를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한 노력과 간부들의 관심을 높이고 꾸준한 직원교육과 전문세무인 육성으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한 결과 시민만족도 세무부분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건수가 누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99년 이전에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구세가 체납건이 9,228건에 14억 5,058만 6,000원, '97년도 체납건이 5,277건에 6억 5,947만 6,000원, '98년도 체납건이 7,106건에 8억 3,385만 2,000원, '99년도 체납건이 7,967건에 9억 2,861만 1,000원, 2000년도 체납건이 7,893건에 10억 9,515만 6,000원 총 3만 7,331건에 49억 6,768만 1,000원이 체납되었으며 또한 교통관련 위반과태료 체납건이 '96년 이전 체납건이 197,007건에 63억 3,922만 4,000원 '97년도 체납건이 5,721건에 21억 2,152만 1,000원, '98년도 체납건이 8만 9,531건에 35억 6,899만 5,000원, '99년도 체납건이 5만 8,402건에 24억 3,880만 6,000원, 2000년도 체납건이 6만 4,187건에 26억 2,562만 1,000원 총 46만 1,877건에 170억 9,415만 8,000원이 체납되어 구 재정수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거주자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코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 전일주차시 월 4만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주차하는데도 외부차가 장시간 불법으로 주차하는 등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도로기능을 상실하여 교통지도에 신고하여도 신속히 견인해가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차하는 차가 고급차라 해서 견인을 기피하는 등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차질서 확립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억원 이상 입찰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억원 입찰건이 31건에 당초예산 145억 6,896만원에 낙찰가 108억 2,314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자가 하도급을 하여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오며 입찰의 방법에는 일반경쟁계약과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찰업체가 전원 타지역에 거주하는 업체인데도 종로 관내 업체에서는 한 건도 수주를 못 하는 실정에 있으며 수의 계약건만 해도 2001년 10월까지 111건 수의 계약되었으나 종로 관내업체에서는 불과 13건 수의 계약하였고 98건은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종로관내 건설업체가 사업시행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특성을 잘 고려하여 하자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사업을 우리 구 관내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방법을 개선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종로거리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거리의 기업형 노점상 문제로 누차 동료의원과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정비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성행하고 있으며 점포 앞에 주인으로부터 상품을 야적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로정비기 동반 2개조 30여 명과 취약지역 상주근무조 5명, 야간단속조 10여 명의 단속원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인왕산 무속인 단속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산인 인왕산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무속인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의 악취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속인들이 새벽3시경에 여러 명이 주택가를 방황하면서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 고성방가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이들이 종로구청에서 보호하는 무형문화재라도 되는지 이를 방치하고 있는데 단속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종로만들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며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년에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무악동 주민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일 사업마다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丁炳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泰淳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안녕하세요? 지금은 없지만 세종로동사무소, 청운동, 현재는 사직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치1번지 중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자긍심과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鄭泰淳議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미사여구는 많이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장님께서 지금 종로구민들이 수요하는 곳에 대한 공급이 얼마나 충족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대변인이라고 자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운동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운아파트에는 현재 1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번 6만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는 쪽으로 언론보도는 늘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단지도 소규모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완화조치하는 쪽으로 정책이 국민이 편리하게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탑과 무허가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

체장들이 건의한 결과 이것도 완화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운아파트 문제는 전년도에 서울시장과와의 데이트 때 주무국장인 국장께서 청운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주민의 의견대로 좋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그것은 중간에 절대로 안된다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청운아파트 주민들의 부푼 꿈과 기대는 무너지고 현재 근심과 고통의 나날 속에 삶의 의욕을 잃고, 특히 겨울이면 수도가 동파되고 이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서울시장님은 주민의 고통을 재삼 고려해서 정부의 햇볕정책처럼 청운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너그럽고 따뜻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대변합니다. 100여 세대의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서울시장께서는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종로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정연설에는 내년도에 청운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금년 추운 겨울은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데 특히 수도 동파 등 월동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동 소재 신교동 주차장 공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운동 신교동 주차장은 현행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근시안적인 주택정책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는 크나큰 소방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타개책으로 신교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옥의 티처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주차장 자리에 모 재벌회사 회장님께서 살고 있었던 고급 저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인접된 주민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정원수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신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급 별장이 주택에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청장께서는 주차장을 쾌히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공사하면서 공사 설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저는 전자에 효자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빨간 블록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주차장 담장이 흉물스러워서 청운·신교동에 있는 주차장만은 옆에 장애인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에는 덕수궁 담장처럼 고급돌이 오랜 벽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고급 정원수를 활용해서 적어도 효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의 담장처럼만 하지 말아달라고 주무국장과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있는 실물사진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종로구청이 묘목을 소나무 하나 구입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모 회장께서 모 국회의장이 강원도에서 농장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묘목과 정원수가 있는데도 지금 그 앞에는 빨간 벽돌로 담장을 형무소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 자리에 오시면 항의를 하시겠지만 주민의 원성을 듣고 본 대변인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좋은 값비싼 묘목과 정원수가 있는데도 굳이 빨간 벽돌을 흉물스럽게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현장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는 날로 도심재개발 하고자 해서 공사장의 기계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교통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언제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권한은 행정관서에 있을는지 없을지는 저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주민이 필요할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사장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와 차가 다닐 수 있는 교통도로를 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대변인은 생각합니다. 종로구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얼마나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는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3개 동을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올라가는 건 물가와 공과금 세금이라는 이구동성으로 불평불만하는 점을 감안,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입체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목적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이상 노령인구에게 지급합니다. 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길게는 7개월, 8개월 적게는 1개월까지 사망한 이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종로구청만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3개 동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개 동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이틀동안 각 동 공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인당 월 1만 2,000원씩 지급해야 되는 것을 3개월 사전 지급하기 때문에 각 동 집계표를 여기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청운동에 8명 지급대상 21만 6,000원, 효자동에서 20명 지급대상에 40만 8,000원, 사직동 19명 대상에 40만 8,000원, 삼청동 14명 대상에 30만원, 부암동 23명 대상에 54만원, 평창동 36명 대상에 73만 2,000원, 무악동 11명 대상에 20만 4,000원, 교남동 15명 대상에 36만원, 가회동 10명 대상에 16만 8,000원, 종로1~4가동 38명 대상에 45만 6,000원, 종로5~6가동 17명 대상에 38만 4,000원, 이화동 18명 대상에 40만 8,000원, 혜화동 7명 대상에 14만 4,000원, 명륜3가동 7명 대상에 13만 2,000원, 창신1동 6명 대상에 14만 4,000원, 창신2동 12명 대상에 22만 8,000원, 창신3동 13명 대상에 25만 2,000원, 승인1동 13명 대상에 28만 8,000원, 승인2동 8명 대상에 18만원 이것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제가 주무국장님한테 노인교

통수당을 현금으로 언제부터 지급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무국장과 그 부서 주무과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저한테는 분명히 작년도부터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96년 1월부터 교통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 금액을 우리 종로구청 1년치를 합산해본 결과 토탈 595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이것을 '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집계를 해보니 3,57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청과 대한민국 읍·면 20개 읍과 면 1,219개 동 2,090개 합 3,513개의 읍·면·동을 산출한다면 기하급수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이것을 지급하는데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주무부서에서는 왜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다시 성찰하시고 검토해서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 종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조사할 것을 다음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 구청사,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시 청사문제는 여건이 안 좋은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것은 생활화 습관화하는 생활방식의 소유자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든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생활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찌다 우연의 일치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발백중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다가 장님 문고리 잡듯이 잡을 수는 있겠죠. 우리 종로구청 청사에는 2,600평이라는 최고급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다른 우리 청사문제를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교남동 청사가 60억 6,65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로 5,6가동도 지금 41억 9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이화동청사도 29억 9천이라는 예산을 수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신3동청사도 곧 13억 8천이란 예산을 들여서 곧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4개 동만 합계를 해도 146억 3,100만원입니다. 전자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종로에 구민회관이 없어서 번듯한 구민회관을, 위치는 비록 한쪽에 치우쳐 있지만 공사대금이 246억이 소요됐습니다. 아주 번듯하고 구민들이 좋아하지요. 적어도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짓는데 246억이 소요되고 4개 동을 신축하는데 146억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종로구청이 1,600평의 부지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서서 건축비만 소요한다면 충분히 종로구청사도 타구에 못지 않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1년 의원에 입후보하고 2대, 3대 의원을 거치면서 누누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청장님의 답변은 항상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이면 이제 3대 회기도, 의원 임기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실천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적어도 이러한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세월이 7년 이상 지났는데 번듯하게 구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을 우리는 적어도 볼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구민회관과 동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건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청사가 됐을 텐데 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종로 20만 구민 앞에 계신 동료의원,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무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의 어려운 곳을 대변하고 굿어주고 치유해줘야 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이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기분은 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것을 해량해주시고 모두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

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鄭泰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壽漢議員!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두메산골에서 온 부암동 출신 玄壽漢議員입니다. 지난 십여 년 간 고락을 같이 해 온 관계공무원께 질의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 질의가 질의보다는 본 의원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십여 년 간의 의원 생활을 정리하면서 수십 년 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조지석 고갯길 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해하기 좋게 개요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욱 관계부서인 건설교통국의 국·과장이 새로 바뀌었고 도시관리국 과장이 새로 부임했고 국장님도 맡으신 지 얼마 안됐기에 처음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우리 구청장님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91년 의원이 됐으니 그 이전에 '80년대부터 추진해오던 길입니다. 조지석 고갯길이라면 역사에도 남아있습디만 신영동 158번지에서 부암동 175번지 사이에 약 30m길입니다. 양쪽으로는 길이 전부 확보되어 있고 이 길이 왜 필요하나 하면 신영동 158번지 일대에는 여름 장마만 지면 고립되는 지역입니다. 침수가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침수 때 세검정 로터리가 침수범람으로 인해서 이 수해지역을 와볼 수가 없는 그러한 고립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일방통행로를 뚫어서 주민이 대피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설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91년 다행스럽게도 본 예산에 1억 3천이란 예산이 편성되었고 상반기에 공사발주가 안돼서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에 5,000만원 반영한 것은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요인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추경에 5,000만원까지 반영을 했지만 그 해 '92년 공사는 불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먼지가 난다고 공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 신영동 160-3 외 8필지가 소유자는 박문규씨 인데 3,000여 평의 건축허가 형질변경이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그 형질변경시 노폭 8m에다 고갯길이 약간 경사가 있어 10m를 낮춰서 선공사 후 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지금까지 IMF와 더불어 공사 가망성은 없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중장기계획에 '98년부터 2002년 내년까지 이 도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넣었습니다. 총사업비 4억 1,000만원, 건물 m²당 보상비 40만원, 도로보상비 m²당 150만원, 사업목적은 신영동 삼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막힌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는 주민통행 편의제공 및 소방도로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개요도 마찬가지로 노폭 8m, 길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길이가 한 30m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뜻과 말씀을 믿고 해주겠지 하고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혹시나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디만 2002년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디다. 역대 동장을 한 동장님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목 실무팀의 대략적인 견해는 보상비 및 공사비로 약 2~3억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조건부 허가 때문에 구비를 투자하면 또 구비를 투자할 수 없다, 만에 하나 구비를 투자한다면 감사에 지적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재산상에 관한 어떠한 인·허가사항에서 건축허가 때나 형질변경시 이 조건부허가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건부허가를 하게 되고 또 조건부허가를 해줬으면 이것이 장기간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못하고 4개 통 주민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4개 통 주민의 차량이 오륙백대가 넘습니다. 이것을 구기동이나 평창동에서 유턴 해 가지고 하림각 앞에까지 나올 때 길이가 약 3km 약

10분이 더 경과됩니다. 500대만 계산을 해보십시오. 10분 초과로 인한 또 3km의 유류 소비량을 계산해볼 때 엄청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부허가 때문에 구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말씀이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니고 십여 년간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이때나 저때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의원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요지는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시 조건부허가를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법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또 그 조건부허가 때문에 구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항상 관계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신영동 158에서 부암동 175번지에 있는 이 약 30m도로 양쪽길은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속히 개설할 수 있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십여년간 미뤄진 것은 저도 무능력했기 때문이지만 담당 관계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일을 할 만하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바뀝니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이쪽 저쪽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양쪽을 찾아다니면서 합해서 말씀을 드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오니 이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玄壽漢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憲九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존경하옵는 종로구민 여러분!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있게끔 선출해주신 효자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출신 시민 행정위원장 李憲九議員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정중한 인사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 여섯 가지는 3기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질문하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鄭興鎭 區廳長께서 본 의원의 질문이

효자동 주민과 종로구민들의 질문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상동 자연공원 내 누상동 산1번지 3호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곳은 지난 7월 14일 폭우 때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원지역 내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있어야 할 건물이라면 양성화를 해주셔서 수리를 해서 살게 하든지 이번에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피해 가구에 15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의 공원정비사업계획으로 2000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을 짓게 하여 그 건물을 처리하는데 귀중한 시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규모 106만 5,120㎡이고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4억 2,600만원입니다. 조속히 서울시에 건의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건물 보상내역이 내려왔어도 작년에 시행이 안됐습니다.

둘째,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 건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문건으로 종로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요 청와대 안마당이 내려다보이는 지역이면서도 소방도로 없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공원지역과 풍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해방이후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거의 변한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청운동 56번지 도로와 옥인동 서울교회 도로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로 개설한다면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편의는 말할 것도 없고 소방사각지대에서 신교동 2번지 일대가 해방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인왕산 수목원 일대를 주민들이 자주 다니면서 공원의 수목을 가꾸면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대략 6~7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효자동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궁정동 13-3에서 효자동 50간 도로개설공사가 2003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공사비 16억원의 절반만 있어도 신교동 2번지 일대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효자동 지역은 작년에 하수도공사를 끝내고 아스콘까지 깨끗하게 석위 놓은 지역으로 오히려 주민들께서도 도로확장을 원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입니다. 그 예산을 이 지역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 예산만이라도 책정하시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11월에 신교동 2번지 주민 지춘수씨 외 132명의 연명으로 된 진정서를 받으신 적이 개설 겁니다. 여기 진정서 사본도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 주민들이 보냈습니다.

셋째, 질문은 둘째 질문과 연결된 사업입니다만 옥인동 47-325 가옥으로 인하여 옥인동 47번지 일주도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본 의원이 이 대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을 하려고 예산 2억 5,000만원을 구청에 요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옥주가 가격관계로 매도에 응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매도에 응하기로 하였으니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옥인아파트에서 옥인동 수목원을 지나 신교동으로 일주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본 의원 '93년도에 옥인동 47-325 대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예산서 사본입니다.

넷째, 옥인동 수목원은 서울시예산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만든 그 당시에는 서울시 역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과 우리 동료의 원님, 그리고 서울시민이 나무를 기증하여 식목한 지역입니다. IMF시절 공공근로사업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수종을 개량하고 아카시아 잡목으로 산책길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의 칭송을 받았던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주민들의 무관심과 당국의 사후관리가 허술하여 지금은 다시 아카시아 잡목이 무성하고 우리가 애써 심어놓은 나무는 금년같은 가뭄에 말라죽거나 가꾸지 않아서 수목원인지 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이 지역에 청운동과 신교동 그리고 옥인동으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면 많은 시민이 산책하면서 숲을 수목원과 꽃밭으로 가꾸리라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해아림이 있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제 金福同議員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충성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불법광고물과 플래카드 정비는 몇 년을 두고 계속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지정된 게시대를 세워서 플래카드를 걸고 간판은 원색이 아닌 간색을 채택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특히 무질서한 광고를 혁명적 차원에서 정비하시라면서 이웃 중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매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광고 정비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 실시한 광고물 정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광고물 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셨다니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선진국형 광고문화 도입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센터의 교양과목이나 취미교실 등의 운영방식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을 다녀보면 경쟁적으로 교양과목이나 취미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동마다 참여 인원이 많아서 더 수용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몰라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원이 적으면서도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주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은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근 동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중복하여 운영하지 말고 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구청에서 지정하여 주거나 촉구하여 주시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기능 전환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吳錦南 前 副議長께서 거론한 문제이나 보충성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동기능 전환의 원상복구

를 권고합니다.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의 근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스스로가 주민의 뜻에 따라 동민이 자치적으로 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자치적인 훈련이 덜된 탓인지 의타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청소문제나 토목 하수같은 문제 등은 아직은 훈련 부족인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의뢰하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우리 종로구 의원들께서 이 동기능 일부 전환문제를 의원 발의로 결의하신다면 환원시킬 수 있으신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효자동 지역은 청와대와 경복궁 그리고 인왕산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 지역 옥인동 47번지 일대 천하 명당지역에 재개발이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로 사업인가가 나오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누하동 5통 지역은 사직동사무소에서 신고동에 이르는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써 빛을 보게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의를 보고 그간 다섯 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세번의 주민 동의서 제출을 받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여섯번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옥인동 47번지와 같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구청에서도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고도가 21m입니다. 이 지역에는 6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효자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누하동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

는 점, 창성동 109번지의 소방도로, 또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을 개설한 점, 또 효자동사무소 앞 견고식은 골목 및 쉼터 조성,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특히 지난 수해 후에 횡단 빗물받이를 20여 군데 이상 설치하여 앞으로는 금년 같은 큰 수해에도 걱정이 없도록 한 점, 또 사직동사무소와 신고동 도로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가로등과 신호등 그리고 점멸등을 설치하고 가로수 왕벚나무를 식재한 점, 또 추사로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한 점, 동사무소 내 문화센터를 재수리해서 지원해준 점, 옥인동 불국사 담장 철거 후 축대 설치와 쉼스 설치로 주민에게 조망권을 되돌려준 점, 옥인동 수목원 근처에 지하수를 개설하여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점, 해맞이동산을 정비하여 군 철조망을 철거한 점 등은 우리 효자동 주민들은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종로구가 정말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복지예산이 고통받는 분들과 날로 늘어나는 노인문제, 또 어린이·유아 문제 등을 위해서 책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壬午年 말의 해는 말같이 뛰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읍시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憲九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弼根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弼根議員 혜화동 출신 吳弼根議員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요람인 종로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혜화동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9만 종로구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 區廳長님! 여러 국 간부님! 그리고 일선 동사무 소와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 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 면서 생각해본 바 직원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은 직원 입장에서 업무를 이 해하고 격려하여 주신다면 서로 사랑받고 존경받 는 살맛 나는 종로구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확 신해 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왔 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고 마무리 하여 2002년 새해에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리 에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우월한 국 민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 니다.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 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중복 질의가 되어도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노 점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차례 질문을 드 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껏 시정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종로거리는 2002년 6월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관 광 육성책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문화거리를 조성 하겠다는 계획에 의하여 인사동과 대학로, 비원 앞 등에는 9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탐 방로, 즉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져 문화유산의 보고인 종묘, 비원, 창덕궁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전통의 거리인 인사동과 젊음과 낭 만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를 걷고 싶어하는 외국인 과 내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랑스러운 문화1번지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우리 종로구민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1가를 비롯하여 세종로·율곡로·대학로 등 8개 노선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종로 2가에서 6가 왕산로는 일몰 후에만 잠정허용하였 는데도 대낮부터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 인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예를 하

시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노점상들이 버 리는 음식물 찌꺼기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 고 있으며, 더욱이 이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엄청 나게 발생하여 길거리를 뒤덮고 있어 청소행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금년에 2억 4,600만 원을, 2002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62%의 예산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노점상 단속을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인데 노점상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 11월 15일까지 노점상 단속 및 계도 실적을 보면 노점상 1만 120건, 노상 적치물 1만 1,110건을 단 속해서 333건에 투입예산 2억 4,600만원에 비해 1,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거리에 가보면 노점상은 더 늘어나고 있고, 단속 확대의 부작용으로 시민과 노점상들에 게 좋지 않은 인상만 심어주는 단속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단속업무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동은 1억 3,000만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서진환경 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아 연인원 2,352명 일일평균 1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안국동 로터리 에서 남인사 마당까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 대상목표는 포장마차 9대, 기타 노점상 35대 중 에서 현재 정비실적은 포장마차는 9대를 완전 정비 를 하고, 기타 노점상은 인사동에 맞게 질서유지 를 하고 신규 노점상 발생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아 대학로와 종로1가동 노점상 절대금지구 역 여덟 군데도 인사동과 같이 노점상 단속용역을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 며 앞으로의 노점상 단속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노점상 연합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내년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관계공무원께 서는 연합회 간부들과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아름 다운 종로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대행업체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불편사항이 많은 점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 관내의 쓰레기 대행업소는 종로1.2.3.4가, 종로5.6가, 명륜3가, 창신동, 승인동으로서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곳의 지역들이 구 도심지역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 이면도로가 많으며 손수레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할 고지대가 많은 곳이며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서비스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고,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하고 가로변 배출 쓰레기도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대행지역보다 동부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셔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대행지역을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 지역으로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많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좋은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동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적치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창신3동의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이런 모범사례가 종로 전 지역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의 신현봉 동장은 쓰레기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매일 두세 차례의 관내 순찰을 통해 무단쓰레기 적체가 확인되는 대로 공공근로자와 함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대행업소나 구청 기동반에 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대형폐기물과 목재류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로 날짜를 정해서 동사무소의 관용차로 동장이 직접 직원과 함께 처리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주민 7,8분씩을 모아 자율감

시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무단투기가 아주 심한 곳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주민을 계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동장의 순찰일지와 현장을 스크랩한 사진을 보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창신3동 관내를 돌아보고 무단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탁월한 행정과 동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창신3동 신현봉 동장의 사례를 종로구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최고의 구청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종로가족에게 2002년도에는 희망의 한해와 최고의 종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혜화동 주민 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弼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炯述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가회동 출신 李炯述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鄭興鎮 區廳長님!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내외국인들 손님맞이에 대해서 집행부인 종로구청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2001년 10월 1일 저녁 TV 화면을 우리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월드컵 32개국 조편성 추첨과정을 지켜보고 2002년 월드컵 때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오리라 아마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관광객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종로로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이 있어 이 모든 곳이 외국인이 즐겨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르고 전 세계에 한국의 빛나는 모습을 널리 알렸을 때 구 소련 프라우다지 기자 한 분이 창덕궁

담장 옆 원서동 달동네 모습을 보고 '한국에 거지가 득실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라' 하고 악의에 찬 선전을 전 세계에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사전에 준비를 했더라면 '88올림픽이 성공리에 성대하게 치러진 대축제에 옥의 티는 없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때에는 두번 다시 우리 종로에서 이런 옥의 티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월드컵을 맞이해서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든 분들이 종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종로로 다시 찾아와 보고 싶은 종로로 기억 속에 남기기 위해서 이 종로를 상징하는 마크를 공모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약 1만여 개를 나누어준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상징적인 마크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대봐야 약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무료로 갖고 간 관광객들이 각 나라에서는 그래도 수준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 대한민국 중심지 종로에 갔더니 600년 된 종로에 이런 곳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종로의 재산이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종로가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600년 역사의 종로가 전 세계인에게 공히 기억 속에 남을 것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그런 일을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종로에는 수많은 역사문화 사적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값진 문화사적이 우리 기억 속에 묻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을 본 의원은 통감합니다. 그 모든 사적을 잘 다듬고 가꾸면 빛이 날 것이며 방치하여 버려두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수많은 문화유적지를 찾아내고 발굴하여 다듬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들고 온 이 문화사적지 분포 현황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적지 그 어느 하나하나 잘 가꾸고 다듬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온 도면 이외에도 수많은 역사문화 사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종로의 일부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북촌마을에 있는 문화역사 사적입니다. 수많은 사적이 즐비하게 있어도 어느 것 하나 가꾸고 다듬은 것이 없습니다. 훼손되고 묻혀지고 역사 속에 묻혀갑니다. 바로 2000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은 좋은 빌딩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역사를 잘 다듬고 가꾸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우리 종로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 산실입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장소에서는 몇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점은 어제도 동료의원들이 청장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디 다른 데가 있어 가지고 안 해주시니까 그 일이 안되는 거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일이 잘 안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빠른 시일 안에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계동길 정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계동길은 북촌마을 심장부요 중심지에 있는 중앙로라고 명칭하는 중앙고등학교에서 현대건설 가는 약 300m는 되는 도로로 좁은 입구에 지금 도로폭은 지금 현재 6m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중앙고등학교 학생, 대동정보상업고등학교 학생, 주민 해서 한 시간 때에 1만여 명이 넘는 연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대 가지고 대단히 소란스럽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5%는 집을 지어서 2m 후퇴를 했습니다. 5% 정도가 요철이 되어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도로에 서울시에서 2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길을 넓히려고 했는데 계동에 사는 주민이 아닌 가회동에 사는 몇 주

민들이 아마 구의원이 미워서 데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에게도 찾아와서 길 내지 말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 신분은 가회동 신분이 아닌 다른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넓히지 마라, 이것을 안 넓혔을 때 북촌 가꾸기라는 것은 잘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가꾸었을 때 10년 100년 후에 아, 정말 잘 가꿨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요철되고 길이 흉물스러운 길은 북촌 잘 가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동길은 청장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주민들을 2,000명을 모아놓고 계동에 사는 주민만, 한 20명 이외에는 전체가 길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때문에 길을 못 넓힌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집을 한두 집 뜯겨나가는 집은 아파트 입주권 주고 건물비 보상해 주고 땅값 보상해주면 그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청장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꼭 좀 길이 뚫려서 북촌이 제대로 가꾸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좋은 답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네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창덕궁 서쪽에 위치한 원서동은 세계 문화유산인 비원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자주 찾아오는 북촌의 관광명소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와 보고 싶은 거리, 그분들도 다시 찾아와서 걷고 싶은 거리 이 거리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외국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면 그 관광수입이 종로 자산이 될 겁니다. 원서동 서쪽 담장편에 그 지역을 잘 가꾸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몇 차례 질문을 드린 건입니다. 창덕궁 서편에 위치한 원서공원의 야외 전통 혼례식장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도 혼례식은 할 수 있습니다. 와 가지고 야외 혼례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혼례식을 치러서는 북촌이 관광명소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선진국에 가보면 골목 골목에 그 나라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합니다. 거기에 적어도 창덕궁 비원 앞에 있는 건물과 어울리는 건물을 하나 이쁘게 지어서 비가 오면 비도 그 안에서 피할 수 있고 또 폐백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시설이 없이는 혼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봅니다. 점차 잊혀져 가는 전통혼례식을 창덕궁 서편에 위치한 원서공원에 개설해서 조랑말 타고 가마 타고 피리 불고 나팔 불며 무료로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치를 수 있도록 KBS, MBC, SBS 3대 TV가 말 타고 가마 타고 방영하면 아마 부산에서도 올 거고 광주에서도 올 거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 그 모습을 외국사람들이 신기하게 봅니다. 이 자리에서도 먼 첫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현궁에 전통혼례식을 말도 안 타고 하는데도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는 안 떠납니다. 또 거기에 잔치하는 혼주들이 옛날 우리 시골 가면 잔치할 때 국수 줍니다. 국수 해봐야 사오천원 하는데 한번 잘 대접하고 정말 잔치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혼주도 예식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로 찾아오면 돈화문 옆 어디 가봤더니 말 타고 가마 타고 전통 혼례식을 하는 것이 정말 볼 만하더라 이런 관광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촌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북촌가꾸기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區廳長님! 상설 기획단장이신 盧張鐸 副區廳長님! 여기에 관해서 북촌을 도와 주시면서 일하신 관계공무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은 구민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북촌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은 본 의원에게 단련도 많이 받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북촌가꾸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촌은 경복궁, 창

덕궁 사이에 위치한 600년 고도 역사문화 사적지가 수없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북촌가꾸기는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12월 서울시조례를 제정해서 844억 실질적으로는 1,000억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예산도 확정하고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정개발원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계용역을 맡고 금년 연말까지 대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이 역사문화에 조예가 깊은 건축과 직원, 토목과 직원, 문화진흥과 직원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과 직원 등 유능한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서울시 북촌사무소에 파견해서 보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전부 좋은 지혜를 짜내서 이 북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데 이 종로구청에서 깊이 관여를 해주셔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에 따로 종로구에서 파견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도 달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북촌가꾸기에 실질적인 실무팀을 구성해서 파견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북촌가꾸기 종합대책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종로구청은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이런 책은 한 부씩 보내줘야 됩니다. 지난해에 2000년 연말 되었을 때 서울 고건 시장님이 우편으로 북촌주민 전체 가가호호에 보내준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우리 주민하고 한 약속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목조목 금년 중에는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집을 사겠다 집을 사가지고 방치하면 안됩니다. 집을 사면 그 집의 12공방 옛날 궁궐에 납품하던 잣이나 가구 같은 것 여러 가지 전통적인 12공방 같은 것을 하고 역사 소규모 박물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책자로 해 가지고 시티투어 버스를 북촌에 보낸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북촌에 전부 외국관광객이 오면 한옥에 와서 자고싶다 거기에서 자고 한국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일을 구민하고 약속한 이 사실을 우리 북촌주민 전체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안하고 있

습니다. 금년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어느 땅 한 톨도 안 샀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 일이 진행됩니다. 이 일을 고건 시장님이든 위에 계신 분이 알게 되면 기절하실 겁니다. 주민하고 약속 사항을 지켜줘야 될 것이고 금년에 못쓴 예산은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써줘야 될 것이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현직 시장님이 앞으로 더 투입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북촌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무진이 못하면 청장님은 불러서 질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북촌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 구의원의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하나요 합니다. 서울시가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북촌을 다듬고 가꾸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 도면 속에 정말 우리 역사의 귀중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집행부 종로구청에서 앞장서서 하나하나 다듬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에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종을 안 치시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의 끝으로 金正大 副議長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議員 승인1동 출신 金正大議員입니다.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발로 해서 각 국의 행정감사와 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구정 전반에 관한 다양하고도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배려와 노력을 다해주시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해서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정한 감사를 드러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19만 구민 모두를 위해서 날로 분주하리만큼 보기 드문 열정으로 24시가 아닌 25시 구청장으로 알려진 참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鄭興鎭 區廳長님!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도·농간에 걸쳐서 여러 곳에 두루 족적을

남기신 행정의 대가이면서도 행정능력의 노장이신 盧張鐸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하 1,400여 우리 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번 우리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각별하신 수고로움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질문은 예정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승인1동 주민들의 열화같은 박수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처구니없는 현황 보상기준으로 인해 개인재산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이고 해당 주민의 황당한 모습을 보다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鄭興鎭 區廳長님! 그리고 관계 국, 과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많은 해량 있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승인1동 61번지에서 59번지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문제의 구간은 1963년 7월 1일 건설부 고시 432호로써 도로개설 결정이 된 이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30여 년 동안 미루어져 오다가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해 작년 2000년에 착공해서 2001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6m 넓이에 길이 140m, 보상비 10억원과 공사비 4억원 총 공사비 14억을 들여서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택이 이면 소방도로 개설에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주신 鄭興鎭 區廳長님께 지역주민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땅인 승인1동 59-1 백성기씨의 소유 80평 중 30평이 도로개설에 편입된 분명한 사유지입니다. 소유주와 지번이 동일한 소유주도 같고 지번도 같은 이 30평 중에서 5평은 평당 450만원이고 나머지 25평은 450의 1/3값인 150만원에 감정평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백성기씨의 11월 10일자 우리 구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 보면 제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삼사년 전 그 당시에 사실상 규정된 도로는 아니지만 미구획으로 바로 작년에 착공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아스콘포장을 바로 건너편 4m 도로에 하다가 남은

것을 거기다 뿌려서 우선 보기엔 도로같이 이삿집이나 내다놓고 하는 넓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내놓은 땅이, 일부 지역은 평당 450만원인데 비해서 일부 지역은 150만원으로 차등 보상된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땅이라고 경계선에 말뚝을 박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방해한 토지는 사권의 권리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대지로 보상되어서 450만원이 보상되고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데 협조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철거해 주고 주민들의 원성이나 당국에서 또 때로는 반강압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부와 흥부에 비교를 해 봅니다. 놀부같은 사람은 450만원에 보상해주고 흥부처럼 착한 심성을 가진 이웃과 당국에 협조를 잘해서 간접도로로 기능을 도와준 사람은 150만원으로 1/3로 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인동 59-1번지 백성기씨의 경우 총 대지 80평 중에서 30평이 본 도로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중에 말뚝을 박아놓은 5평은 평당 450만원이고 그렇지 않은 25평은 평당 150만원에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자그마치 물론 땅도 30평이나 많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승인동, 창신동 지역에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차액만 해도 똑같은 땅인데 약 8,000여 만원의 차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성기씨가 150만원에 보상받은 토지도 당초에는 평당 450만원짜리와 같이 경계에 말뚝을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공사시행 감독부서 직원 박 모 직원 등이 도로로 개방해도 보상가에 지장이 없으니 말뚝을 제거해 달라는 약간의 강압적 부탁도 있었고 또 제 기억으로는 삼사년 전에 남의 집 대지에다 아스콘이 남아서 포장할 때만 해도 당시 건설국장이었던 국장님께 제가 긴급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포장해서 주민이 도로로 임시사용해도 지주와 양해가 되었는데 보상이 나오느냐 하니까 틀림없이 이 도로가 시행되면 보상을 같이 해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성기씨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청원서에 11월 10일자 우리 구에 접수된 청원서에 기재되어 있으

로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많은 청원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과장님 선에서 처리되고 청장님께는 보고가 안될 때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도로활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8,000여 만원의 보상이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명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관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을 기만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귀착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보상평가 방법은 앞으로도 도로보상 행정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현황도로에 접근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권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주민들의 갖가지 도로기능 장애방법으로 동원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행 보상평가 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의뢰시 감정물건에 대한 현장 정황을 잘 부기해서 위와 같이 도로기능에 협조한 토지와 억지를 부려서 현황이 사권 내에 있다는 사실 등을 감정평가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 현장정황 설명 등에 최선을 경주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도로개설사업에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전과 같은 정황을 부기하여 재감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 전까지는 도로관리청인 구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하였다면 도로로 무단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판례에서 일반화되어 구 공사 부서에서도 사권이 있는 도로 등에는 포장이나 하수도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화동 일부 지역에 포장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 명목만 달랐지 예산부담은 어차피 수반되는 사항을 감정의뢰시 상황설명이 부족하여 민원만 야기하는 본 보상사항을 구청장께서는 재고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권고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以煥 金正大 副議長!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질문과 경청을 위해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會議中止)

(14時42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鄭興鎭 區廳長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세세하고도 소중한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처음 吳錦南 議員님께서 질문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맨처음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건수와 개인 신상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조회는 국제징수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전 25개 구정이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실시 이후 예금계좌가 발견되면 즉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체납금액을 자진 납부토록 통보한 후 체납세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예금을 추심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종로구 체납자 5,250명이 포함된 25개 구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실시한 결과 790건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하였고 시세와 구세를 압류한 체납액 7억 6,000만원을 자진 납부와 추심 등을 통하여 징

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취득한 개인별 정보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철저히 관리해서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 49억 여원, 3만 7,000건입니다. 또 9만 6,000건에 시세 310억원 등 총 364여 억원으로 징수목표 53억 9,000만원에 대비해 6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세무2과에 과년도 체납을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을 설치하고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는 구세는 총 15여 억원, 시세 40여 억원 등 총 55여 억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대비 104%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 21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9월말 현재 시세를 포함한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5여 억원이고 총 13만 6,000건입니다. 이 중에서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원입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등과 같이 납부금액이 소액이고 체납자가 거소불명, 부도폐업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이 우리 구 재정의 3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중 높은 재원으로서 주기적인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금 정리기간 설정 운영 등을 통해 징수실적 거양에 노력해서 총 11억 1,6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과자료 및 체납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동 문화거리지구 지정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2000년 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밀집지역과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조례에 의거 시·도지사가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지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안이 세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난 10월에 수립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상정되어 있으며 12월중에 심의, 의결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議員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사동 문화지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조례 시행에 맞춰 문화지구의 성공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문화업종하고 고미술, 도자기 등을 취급하는 상가들과 문화 업종으로 전환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3%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책과 비문화업종 카페, 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단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흡수된 인력을 동사무소로 환원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간 어제 宣相善議員님, 李東奎議員님, 劉燦鍾議員님과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별로 정원의 3, 4명의 초과현원을 두어서 통계 등 각종 조사업무, 현장출장 및 생활민원 현장확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지난 2월 실시한 감사원 종합감사시 동사무소에 배치 활용되고 있던 초과현원에 대해서 모두 구청으로 환원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 최소화 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동의 현원이 저희가 23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161명인데 초과가 72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 현원은 271명이었습니다.

약 37명이 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궁 내 시립미술관 뒤쪽에서 기상청 옆 소운동장에 이르는 자연녹지공간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여부와 녹지공간 내 산책로 및 소운동장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동네 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그리고 종로구의 충북으로서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경희궁은 사적지로서 현재 문화재 발굴과 복원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복원이 완료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시립미술관 뒤쪽에서 기상청에 이르는 산책로 및 소운동장 정비문제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承台 前 議長님으로부터의 질문입니다. 걷고 싶은 돈화문거리 문제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카센터 난립 그리고 보안등 조명 문제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걷고 싶은 돈화문거리에 소개한 업소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정비를 위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관계로 통행에 불편은 물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목적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타지역으로 강제 이전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동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와 합동단속 1개조를 고정 배치해서 한층 강화된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업소 스스로 타지역으로 자진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런 돈화문길 가로등 공사는 연장 790m의 거리에 58번에서 57번을 초과하여 총 115억원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로등 밝기가 당초 18룩스에서 30룩스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돈화문길의 가로등을 수은등으로 교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은등은 에너지 파동 이전인 '71년부터 '82년까지 가로등에 사용되었으나 이후로는 효율이 2.5배 높은 나트륨등으로 설치하고

있고 돈화문길 가로등도 나트륨등으로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거리가 매우 밝아졌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와 같은 30룩스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돈화문길 조명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1~4가동 문화복지센터가 협소해서 구 서울시 새마을회관 부지인 인사동 110번지나 낙원동 재활용센터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洪起瑞議員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보건소 이전문제도 같이 거론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1~4가동 청사는 오래된 노후건물로서 장소도 협소해서 문화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데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 새마을회관 부지를 종로1~4가동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비까지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철거시에 거기에 야외휴식공간 오픈스페이스를 하는 방안과 5층 문화복합건물을 짓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을 거기에 존치하는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대로 낙원동 재활용센터를 차선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적환장을 없애서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의원님께서서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제가 지난 IMF 금모으기 때 내놔서 지금 없습니다. 참으로 제 기억으로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받으면 뇌물이라고 극구 반대했더니 이것 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정말 수지맞은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선거시에 익명의 한 시민으로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유세시에 쪽지를 받았습시다. 탑골공원 뒤에 쓰레기적환장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여져있

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가서 그것을 읽어보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적환장을 없앨 수도 없으면서 이러한 공약을 할 수 없다 고민을 했는데 외람되게 시의원 시절에 동대문 옆의 적환장을 없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여러 번 그 지역을 가봤더니 도로가 비교적 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하고 봤더니 정말 그동안에 여러 단체장이나 또 시장까지도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가지고 적환장을 밖으로 도로 상으로 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업자가 와서 여러 가지로 회유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했지만 그러면 직영을 하겠다 적환장을 없애고 직영하겠다는 그 말로 맞서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만들었을 때 여러 매스컴에서 세계적인 인사동 거리를 쓰레기 적환장을 앞에 두어서 되겠느냐 해서 수없는 지탄을 받고 결국은 우리 구청 뒤로 축소해서 오기에 이르렀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이 근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악취도 맡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하교를 받아서 열심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주민 산책로로 이용하던 종묘의 새벽산책로 개방을 통제한다는 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걱정해주셨습니다. 물론 인근 동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하면 거리에서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거기에서 고성방가도 하고 방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우리 종로구민이 그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앞으로는 그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그

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면서 계속해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丁炳煥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세 구세 및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의 징수대책과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9월말 현재 구세 체납은 3만 7,000건에 49억 7,000여 만원이나 금년도 징수목표는 7억 7,000만원으로서 7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 체납자 중 일인당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명에 32억 6,000여 만원으로 구세가 전체 체납액의 67%를 점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도, 폐업 법인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해서 징수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이미 달성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금융기관 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등을 통해서 징수실적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위반과태료는 체납은 46만 1,000건에 170억 9,000만원으로 다소 많은 편인데 징수실적은 531억 1,000만원 부과에 358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67.4% 징수율로 자치구 평균 징수율 6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서울시 25개 구에서 6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기한내 미납 시에도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징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에도 매스컴을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바 있는데 개정이 되면 아마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향후 5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명의이전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납기 후 납부자에 대한 가산금제 도입을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에 장시간 부정

주차와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견인이 안 되고 또한 견인대상 차량이 고급차량이라고 해서 견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를 개선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총 117개소 3,068면을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주차질서를 위해서 주변 불법주정차 및 비지정차의 부정주차 차량의 단속을 17개 조 45명이 전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고 야간에 단속반이 주민신고 등을 받고 신속히 출동해서 비지정 차량에 대해 견인대상 차량을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으나 무악동, 창신2동, 교남동 등 일부 지역은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진입로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서 견인하기가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인 견인회사 소속의 견인차량 기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출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견인회사를 강력하게 독려해서 신고차량을 신속히 견인하도록 조치하고 또 지적해주신 고급차량에 대한 견인문제는 방법이 인위적으로 차문을 열어야만 견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급차량은 인위적으로 차문을 열지 못하게끔 견고하게 돼서 이 해결책으로 서울시에서 견인업체협회와 협의해서 차량문을 열지 않고 견인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구입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내 건설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참고로 공개입찰에 의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공개입찰은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그대로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런 요건에 맞고 행운이 있어야만 그렇게 당첨되는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더러 자기의 지역이거나 또 자기 동네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공사를 줬느니 이렇게 비방하는 일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또 보니까 공개입찰이 종로구에 소재한 건설회사가 한 곳도 입찰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정반대의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도 조사해보니까 111건 중 13건을 관내 건설회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부연할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조건에 합당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를에도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일반공사의 경우는 50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때에는 지역사업자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 단위입니다. 종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거리의 기업형 노점상문제와 상점 앞의 무분별한 적치물 그리고 보행과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노점상 문제점과 대학로 등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에 노점상 단속운영 확대계획에 대해서 吳弼根委員長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상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하라 하면서도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단속을 하라 하는 두 가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업체 발생을 억제하고 또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날로 늘어가고 있는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IMF 이후 노점상이 많이 늘어났는데 500여 개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1건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많지만 가로정비단속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종로거리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비 단속을 실시해서 그러한 보행불편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을 해소도록 적극 추진하고 대학로를 포함한 인사동 연계도로와 절대금지구역의 민간단속 용역확대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을 금년 9월 서울시 관련 부서에 요청한 바 있고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월드컵행사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아름답고 보행에 불편이 없는 종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왕산이 무속인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왕산이 영험한 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촛불을 켜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행위에 대해서 단속근거가 뚜렷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주민들과 공무원 15명이 매일 2회에 걸쳐서 야간에 합동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50여 명의 무속인들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합동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泰淳 運營委員長님이 질문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의 청운아파트를 내년도에 철거하고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그 자리에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주민의 대변자로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청운아파트 557가구 중에서 87%가 이미 보상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현재 102가구만이 보상을 거부하고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鄭泰淳 運營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과의 데이트에서도 완강한 시청의 의견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파트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부지소유권이 있는 경찰청에서도 부지 매각 의사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재건축은 불가능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7월 서울시에서는 부지 전체를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더이상 재건축을 할 소지를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결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종로 공무원과 함께 시에 대해서 102가구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재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

을 하고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한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도 동파나 또 많은 장마철에 비가 새는 것을 우리가 보수해주시기를 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봉쇄하고 또 보완해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고동 공영주차장 부지 정원수 이전 문제 및 담장 미관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보상과정에서 수목과 정원석은 고급수종과 수량이 많아 감정결과 약 칠팔천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건물주도 대관령목장 공원조성에 사용한다고 계약 체결 시 매매계약서에 명문화해서 건물 철거 전에 나무들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당초 나무를 담장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본 설계자문회의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오후3시에 의람되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동장님도 참석하시고 지역대표도 참석해서 통학로 길 안전과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장 구조를 적벽돌로 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만약 비난이 없다면 鄭泰淳議員 말씀과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저에게 그걸 물어본다면 투시벽으로 해서 속도 훨씬 들여다보여서 거기에서 나무도 심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을 하고 국장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그렇게 결집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심재개발 현장의 소음과 교통장애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수동에 경희궁의 아침, 그리고 송인동 롯데 캐슬, 도림동에 금호건설과 벽산건설에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직공원 건너편 사직1구역도 재개발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해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공사기간 중 우회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소음 분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과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은 '80년 5월 경로우대증 도입으로 시내버스 무인승차제로 전환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제도개선으로 '90년부터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였고 '96년 1월부터 현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매분기 첫월 1일을 기 준해서 20일에 3개월분을 3만 6,000원씩 온라인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수당지급 후 별세한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별세 다음 분기에 착오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청사 신축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고 숙원사항인 이 문제에 대해서 종로발전에 아주 기폭적인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기존 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저와 19만 종로구민의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시장과 언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본부가 완전히 우리 구의 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본부를 일단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청사를 짓기로 시장과 그렇게 언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소방본부가 남산으로 이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

아본 바로는 2002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하6층, 지상20층인데 3만 1,000평이고 예상액은 1,63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청사 건립시 시에서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구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된다면 시에서 4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외에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5대 건설회사가 신청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명당이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이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신청사를 가질 수 있고 또 이 비좁은 의원님들의 의회도 넉넉하고 좋은 의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玄壽漢議員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암동 175번지에서 신영동 118 도로개설구간 중 신영동 158번지에서 부암동 175번지 구간 조수고개의 미착공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선의원님으로서 십여 년 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걸 회고하시면서 제가 뵈기로는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뵈고 그동안 이러한 숙원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슬픔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신영동 178번지~부암동 175번지 구간 폭 8m, 연장 500m의 도시계획도로는 '69년 9월 13일 서울시고시 제73호로 결정된 이후 신영동 118번지~158번지까지 약 200m는 도로개설을 완료했으나 잔여 미개설도로와 연결한 신영동 16-3번지 일대는 '91년 10월 1일자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99년 11월 15일 재개발구역 지정시 본 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다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재개발사업이 현재는 부진한 상태로써 도로로서 개설전망은 불투명하나 토지형질변경 및 재개발사업을 독려해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30여 m만 하면 된다고 말

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답사를 하시고 잘 아시니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계관도 한번 보내서 실제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러한 민간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부채납한 것을 받기로 한 것을 구청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사인에 대한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도 도면을 준비하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기 개설된 곳이고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30m라고 하셨는데 여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동의 李憲九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누상동 산1-3번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누상동 산1-3번지에 있는 건물 3동은 말씀 그대로 조속히 철거돼야 할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서울시에 철거보상비를 확보해 줄 것을 매년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계획은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토록 하겠으며 특히 재해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우선적으로 철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 문제와 옥인동 47-325 가옥 매입 후 일주도로 개설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신교동 2번지 및 옥인동을 연결하는 일주도로 개설요구지역은 가파른 경사의 협소한 현황도이며 또한 고도차가 큰 지역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 내 도로개설은 우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공원조성계획 내용에 도로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추후 공원개발이 요구될 시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왕산 수목원이 다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보다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시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인왕산 수목원의 산책로를 연장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인왕산 수목원은 우리 구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서 수종개량과 산책로를 조성하였는데 지역의 특성상 토양이 척박하고 가뭄 등으로 수목 일부가 고사되어 계속 보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목원 내 지하수를 개발해서 가뭄에 대비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수목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산책로를 연장 조성하는 방안은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한 후에 조성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내의 현수막을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현재 간판 설치 시 원색이 아닌 간색만 사용하도록 혁명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착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에 현수막은 차량을 이용해서 대로변은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하며 정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소도로는 동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족으로 의원님들 몇 분이 구정보고회 때 현수막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떼어버려서 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의원들께서는 용기를 복돋아주셔서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해서 잘했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아시지만 광고하자고 하는 업체는 많고 현재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많이 증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에 2개소, 인사동 28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종로구 관내에 설치된 간판은 원색을 1/2 허용하고 있지만 원색이 아닌 간색 위주로 사용하도록 광고물 심의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아름다운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색깔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성과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옥인동, 누하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사항, 또한 누하동 지역이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한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옥인동과 누하동 일대의 재개발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지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재개발사업을 하여도 시급히 원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어려운 여건임에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었으나 구역지정권을 가진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누하동 70번지 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두 지역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2002년에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층수와 관련해서 누하동지역은 20m이하의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별 건축의 경우에는 20m이내에서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교양과목 취미교실 등의 운영방안 개선점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역시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수강생의 호응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심의결정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급강사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다양한 이용계층의 저변확대와 운영관리 전담인력 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주민선호도가 높은 성공적인 20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동에 시달해서 이를 동별로 벤치마킹하고 둘째, 주간시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운영시간을 아침, 저녁시간에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우수강사, 자원봉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센터에서는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능 전환을 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상급기관 탄원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하는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劉燦鍾議員님, 李東奎議員님, 宣相善議員님 질문시 일괄해서 답변드린 바 있지만 조례의 규정이나 탄원시 현행법체계상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건의하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몇 개 구청에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환원한 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李憲九委員長님께서 많은 지역사업의 수행에 대해서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서의 鄭興鎭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열아홉 분의 의원님,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칭찬은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대로 영·유아로부터 어르신까지 이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吳弼根議員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리 구에서는 대행지역을 동부지역으로 결정한 그 기준, 그리고 대행지역의 전 지역 확대계획, 창신3동 신현봉 동장의 무단쓰레기 수거 우수사례 소개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동부지역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을 동부지역으로 확대한 기준은 확대시행 전에는 수거가 편리한 종로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나 대행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업무가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청소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미화원 일인당 연 소요되는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득실을 따지자면 실 쪽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좀 늦게 치워진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주신 전 지역의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관계와 도시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성상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신3동 신현봉 동장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우수사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정말 자랑하시고도 상세히 감사를 하며 참으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동을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을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현봉 동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19개 동장들은 참으로 열심히 하는 동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는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행정 책임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극소수의 동장들이 부진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합해서 잘 동행정을 수행하도록 그

렇게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吳弼根議員께서는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제도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도 최고의 칭찬이라고 이렇게 격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李憲九 委員長님 말씀과 같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적으로 알고 임기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李炯池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로를 상징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安載弘議員께서 제 기억으로는 CI 개발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지금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곧 그 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게끔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훌륭하신 고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따져봐서 우리 종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택지 등을 개발해서 그런 관광객들에게 우리 종로의 이미지를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월드컵 열기 그리고 조추첨 그리고 종로타워 앞에서 축하한마당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월드컵 그리고 시민월드컵, 환경월드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문화월드컵을 위해서는 우리 구는 문화 1번지 구로·중요 문화재, 역사문화 탐방로, 명가명품거리가 소재해 있어서 많은 손님들의 방문이 예상되는데 이에 걸맞는 다중 이용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월드컵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친절모범업소 육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환경대청결 운동, 옥외광고물 일체정비 등에도 소홀함이 없이 힘쓰고 또 제안해주신 종로를 상징하는 마크를 개발하고 해서 2002년도 구 캐릭터 개발을 추진하고 이게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

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러한 기념품을 나눠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월드컵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월드컵 100일 전 행사 그리고 판소리, 민요 등 전통국악공연 또 2002년 드림페스티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플라자, 종묘제례공연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600년 고도 종로에서 사라져가는 문화재 발굴 및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하시면서 정말로 노력하시는 흔적을 보이신 지도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상세히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개 지구상의 국가가 어려운 때는 뺄 문제를 걱정하지만 좀 나아가 부강해지면 자기 조상들의 문화를 다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약간 과거가 되었지만 만불 시대를 구가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반만년 역사를 다시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의 보고인 종로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나 정부가 거의 마이동풍 식으로 대해왔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제 문화의 세기가 되고 있고 또 일본 역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함에 따라서 문화의 전쟁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여겨온 여러 가지 일들을 시비로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특히 사라져가고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보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다고 한다면 문화재 발굴 및 복원 등은 문화재 전문인력이 있는 문화재청과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시 또는 문화재청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평동 108-1 소재 경교장 등 8건이 신규로 문화재 지정이 된 바 있으며, 시립 박물관에 조선

중기 미술품 등 총 23건을 진달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중앙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총 15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관내 이화장 등 15개소의 문화재 퇴락, 훼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판단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후 훼손된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 공사를 위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촌마을의 계동길을 확장 정비해주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창덕궁 서측 담장 주변 정비 및 공원사업에 전문직을 활용하고 파견할 용의 그리고 서울시장 명의로 주민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한옥을 매입해서 외국인 숙박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바 시장님께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북촌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매년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또 서울시에 의사를 개진해서 많은 효과가 지금 거양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4년간 총 847억원을 투입기로 결정하고 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살기 좋은 북촌의 옛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동길 정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촌환경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정비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창덕궁 서측 담장편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및 전통생활박물관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북촌환경정비 용역이 금년말 완료되면 내년부터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골목길 및 가로정비, 역사 문화 탐방로 공원 조성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7동의 한옥을 매입하였으나 의원님 지적대로 한옥 매입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한옥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서 당초 구상한 숙박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북촌

가꾸기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덕궁 서측에 위치한 비원 서측 담장길을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창덕궁 담장 주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정비해 나가며 우리 구는 조선왕조 5대 궁궐 중 4대 궁궐이 위치하여 고궁의 관광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을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서공원에 야외 전통혼례식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집념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발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취약점이 망각인데 저도 이 의회가 끝나면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서공원에 야외 전통혼례식장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답변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도 조사해 보라니까 현대건설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시다시피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반대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시설물과 관람 좌석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40%이니까 이 점도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북촌마을 가꾸기에 연계해서 이 문제도 서울시와 같이 상의해서 이 점도 혼례식장을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正大 副議長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동 61번지에서 5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문제인데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그리고 제2항1호에 의거 지적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

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동 59-1번지 토지에 대해서 측량 의뢰한 결과 15.8㎡는 대지로 82.8㎡는 도로로 판명되어서 현황도로인 경우는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와 제2호에 의거 인근 대지가격의 1/2로 평가되었습니다. 공특법상의 감정평가 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 확인한 후 각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상대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본 건은 법률 개정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제시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시 재감정을 받을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의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뇌하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그야말로 헌신 봉사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많은 연구와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그 열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 금과옥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구정을 경영하는 데 있어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질문이나 충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숙원사업들은 아시다시피 법률이나 규정상의 문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예산상 문제이거나 또는 일부 극소수의 주민의 반대, 또한 중앙기관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아직 지

방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도약단계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많은 부분이 거꾸로 가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훌륭한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자치가 완전한 착근과 함께 큰 도약의 길로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장구한 시간동안 저의 부족한 답변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민선2기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답변드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을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고 또 환절기에 옥체 강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구민들 그리고 언론기관 여러분들께도 의원님들과 더불어 임오년 새해에는 모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大 鄭興鎭 區廳長님! 어제오늘 구정 전반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상세하게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제안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검토 및 당면 현안사항 심의 활동을 위해서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鄭泰淳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鄭泰淳 運營委員長입니다. 廳長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일부분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廳長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월동기에 대한 대책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금년 청운아파트 주민들의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교동 주차장 적색벽돌 문제를 본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저의 생각과는 반대된 입장입니다. 그 장소를 가지고 계시다 가시면서 그 장소에 대한 미련과 애착 때문에 그 자리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유치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그분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고 값비싼 정원석과 정원수를 그 주차장 자리에 조성하려고 주민들과 함께 힘써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운치있는 주차장을 전원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삭막하고 돈이 드는 벽돌 담장을 안 해도 되니 이는 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명당은 명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저와 지역주민들은 속고 기만당한 기분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大 鄭泰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玄壽漢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玄壽漢議員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신영동 163-3의 8필지 박명규 소유 3,000평에 대한 허가조건과 신영동 158번지 일대 재개발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8m 도로를 확보하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기 장마 시에 지금 다행히 세검1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검정로터리가 물에 침수되면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밤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들어올 길이 없어 가지고, 또 동직원들도 접근을 못하고,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신영동 158번지 일대 주민들이 차량 한 4,5대가 피난갈 피해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 길을 높이를 낮추기 때문에 30m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낮춰줘야지 교통이 소통도 원활해지고 소방도로도 확보되고 또 이런 재난 시에도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재난시설의 개설을 요구하는 바인데 그러한 박명규 소유 형질변경 때 조건과 재개발 때 조건 때문에 이게 어느 특혜를 준다고 하는 사항이 먼저나 주민들의 4개 통 주민들의 세대수가 무려 1천여 세대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문제가 우선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大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보충질문하신 鄭泰淳議員님과 玄壽漢議員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泰淳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玄壽漢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서는 鄭泰淳議員님과 玄壽漢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제1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제1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예산(안)과 접수된 안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散會)

○出席議員數 18人

| | | | |
|-----|-----|-----|-----|
| 金以煥 | 鄭泰淳 | 李憲九 | 吳錦南 |
| 千相旭 | 玄壽漢 | 安載弘 | 丁炳煥 |
| 劉燦鍾 | 李炯述 | 洪承台 | 金福同 |
| 朴鍾植 | 吳弼根 | 洪起瑞 | 李東奎 |
| 金正大 | 宣相善 | | |

○出席關係公務員

| | |
|--------|-----|
| 區廳長 | 鄭興鎭 |
| 副區廳長 | 盧張鏗 |
| 行政管理局長 | 金賢植 |
| 財務局長 | 董連浩 |
| 生活福祉局長 | 李炳滿 |
| 都市管理局長 | 河徹昇 |
| 建設交通局長 | 康亨宇 |
| 保健所長 | 李星世 |

